

### 외국인 근로자 잔치 천천클럽 주최



9월 28일 둔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잔치.

전북의 대표적 불교봉사단체중의 하나인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은 9월 28일 금산, 송광사, 원경사, 우리는 선우, 전북포교사단의 후원으로 임주 산업단지내 둔산체육공원에서 제3회 외국인 근로자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네팔, 베트남, 미얀마 등 11개국 250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발아구, 과자 따먹기, 제기차기 등의 게임을 즐기고 고국의 노래와 개인기를 발휘하며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날려 버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지장 스님 ‘법화경’

#### 자비신행회 경전공부

종교편향 등 불교계가 어수선한 때, 교육과 포교 등 인재불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불자의 마음을 다잡는 경전공부 바람이 불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9월 25일~11월 27일 지장 스님(증심사 주지)의 ‘법화경 열린 강좌’를 시작으로 불교경전공부를 열었다.

지장 스님은 강의의 여는 말에서 <법화경>은 불교가 여러 갈래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기에 등장해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이끌었던 포용의 경전이다. <법화경>을 통해 참된 삶의 가치를 체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50여명이 동참한 강좌는 직장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야간에 개설된 열린강좌다.

한편 지장 스님은 경전연구회 회장으로 매년 서울과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출가자들의 경전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종교인들의 문화공동체인 무등산 풍경소리 이사장, 광주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수경 스님 “오체투지 왜 필요한가”

## ‘기도, 사람·생명·평화의 길’ 오체투지 순례단 동행기

“딱!” “후~!” 갑자기 툭 떨어진 기온과 앞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센 맞바람을 뚫고 죽비소리에 맞춰 온 몸을 내던진 오체투지(五體投地) 순례행렬이 전북 임실 인근 17번국도 이동령 고개길을 오른다.

‘기도, 사람·생명·평화의 길’을 찾아나선 순례단은 9월 4일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모향산을 향하고 있다.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불교환경연대 대표)과 문규현 신부(전주 평화동성당)는 행렬 선두에서 지관 스님(김포 환경연대 대표)의 죽비소리에 맞춰 마른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고 온 몸을 던진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두 성직자의 이마는 땀방울이 맺혔다.

오체투지 순례는 30여일째다. 순례단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3~4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길가에 텐트를 치거나 인근 성당과 사찰 등에서

자고, 식사는 길에서 해결하는 등 사실상 생사를 넘나드는 고행 중이다.

서울, 부산 등 지역과 불교·가톨릭·개신교 할 것 없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순례길’에 동참 중이다. 9월 26일 순례길에는 광주불교환경연대 법일 스님을 비롯한 회원 10여명과 공주 영평사 포교당 현관·정수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동참해 순례단의 발길을 가볍게 했다. 이들 가운데 20여명은 스님들과 함께 땅바닥에 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며 뒤따르는 불자들의 눈가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두 성직자들과 함께 늘어서 온 몸을 길바닥에 던진 이들의 순례길을 위협하는 차량의 질주. 한결 매서워진 바람과 매연, 따가운 가을햇살에 달구어진 아스팔트 바닥의 열기로 순례길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그러나 마음 편하게 차를 세우고 합장 반배로 인사하고 차장 밖으로 손 흔드는 이들이 있어 순례단



‘기도, 사람·생명·평화의 길’ 순례 중인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에 큰 힘이 된다.

공주 영평사 신도 이진복 보살(대전)은 “그동안 했던 어느 기도보다 오늘 길에서 오체투지가 것이 가장 좋았다. 자신을 좀 더 낮은 자세로 돌아보고 느낌과 고통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동참했

다”고 말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기자에게 수경 스님은 “오체투지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실천불교 역할 수행하겠다”

#### 북문문화축제 열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선운사 주지 법만·관장 무공)은 10월 1일 고창주민을 위한 ‘북문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지역내 기관장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행사에는 한국무용 화관무, 생활체조, 댄스 스포츠 등 어르신들이 복지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을 뽐냈다. 또 광주전남북문교육원의 장차 무용과 품바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주거환경개선 복지기금마련 공예전’과 ‘바자회’도 함께 개최됐다. 전사회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에 사용될 복지기금을 마련하고자 11일까지 열렸다.

복지관 운영위원장 법만 스님은 “노인의 날을 기념한 경로대잔치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기금 마련 전시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선운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산중에만 묻어두지 않고 소외되고 병약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해 회향하는 실천불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의식교육 ‘인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원장 원명)은 9월 24일부터 4박 5일간 스님과 재가자를 상대로 생활불교의식과 사찰 상응의식 교육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찰에서 매일 행하는 상응의식과 재가자를 비롯해 천수바라 등 전문의식까지 전수했다.

원명 스님은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이 의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안타까웠다.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많은 불자들에게 여법한 불교의식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각사상 실천해 성불하자”

####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2주년 기념법회

근대 불교의 선구자인 백용성 조사 탄생지 전북 장수 죽림정 사조실 도문은 9월 28일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2주년 기념법회 및 독립운동33인·공주 학생운동 대표 추모대회를 봉행했다.

100여명의 스님들과 3000여명의 불자들이, 천도교, 개신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는 백용성 조사기념관에서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다례제 봉행에 이어 독립유공자 및 광주학생운동 대표 추모대회가 열렸다.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오도송을 소개하며, “용성 스님은 오도 후 대각사상을 선양하셨다. 자각, 각각, 각행, 각민의 대각사상을 실천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9월 28일 장수 죽림정사에서는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2주년 기념법회 등 행사가 열렸다.

추모대회 후에는 석가산 스님(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을 계사로 전주 국제 금강 보살대제 수계법회를 통해 불자 1000여명이 보살계를 수지했다.

한편 ‘헌법파괴 종교편향종시’를 의치며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 도보순례 중인 마조 스님을 비롯한 ‘평화누리 불교연대’ 스님 4명도 이날 법회에 동참했다.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광주 중심사 조영훈 사무국장

### 광주 문화운동의 핵 중심사 살림꾼

무등산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광주를 꺼안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광주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무등산에서 가장 큰 사랑을 품으려면 중심사를 빼놓을 수 없다. 중심사는 광주 대표사람이자, 사찰 중 유일하게 문화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사찰이다.

이곳 중심사 살림을 도맡아 이끌어가는 이가 바로 조영훈(법명 현담) 사무국장이다.

“지금까지 사찰은 지역사회와 교류협력력을 증진시키고, 포교를 비롯한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찰 공간을 개방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조영훈 국장의 말에는 사찰의 역할에 대한 그만의 역력한 고민이 묻어 나온다.

증심사는 현재 부설로 운영



까지도 불교학을 전공하게 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조영훈 국장은 “그저 불교가 좋아서 종립대인 동국대 불교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불전 중앙

### 동진발심해 곳곳서 일한 ‘불교운동가’

하는 무등산 풍경소리를 통해故 일월 스님부터 진화 스님을 거쳐 지장 스님까지 6년여 동안 무등산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중이다. 여기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종교간 대화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역할도 도맡고 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를 아우르면서 지역이 나눔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현재는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과 최명진 목사(미래에서온교회)가 공동대표적인 ‘풍경소리지기’로 활동중이다.

평화와 상생의 음악회를 개최한지 다섯 돌이 지난 무등산 풍경소리는 음악회 때마다 스님과 목

소리 부처님 및 정해실장과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홍보차장을 역임한 그는 생명나눔실천회 실무자 등 불교계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울 봉은사 교무계장을 거쳐 현재는 증심사와 무등산 풍경소리 행정실을 맡고 있다. 광주지역 불교실무자들 모임인 율화포럼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조 국장은 광주지역 불교계의 보배 같은 존재로 불자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조영훈 국장은 광주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불교사업도 구상 중이다. 조 국장이 광주 불교문화운동과 사회문화운동으로 불자들에게 현대불교의 새 비전을 전할 날이 머지않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성불화 카펠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도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II “카펠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 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펠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라는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 최고급 천연방수 “뉴백”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백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펠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취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펠라”는 남녀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 남성용 • 여성용  
• 특수아이젠 부착으로 미끄럼 방지  
• 수염 친화 테크를 거쳐 개발된 신기술 등산화  
• 약천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눈출립 소재의 밑창  
• 가격 88,000원 • 여성용(색상선택안)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도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벽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만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응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인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 옷 옷가네 토종참옷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것은 알지만 옷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 승 박사와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



• 내용량 : 1키스(80cm×60cm) 2개월분 • 1병(1.5L)

####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옷 언더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탈 걱정 없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신문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언더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 난 아니!
- 2003.11 스포츠조선 - 무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서만 익히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성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